



우리나라 최초의 초미니 시(市) 자치단체로 출범

계룡시는 지난 1989년 7월 육군본부와 공군본부가 들어서면서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여, 1990년 2월 충청남도 계룡출장소를 설치하여 명실공히 3군본부(계룡대)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국방도시로 출범하면서 국내 최고의 군문화 중심지가 되었으며, 2003년 9월 19일 충청남도 계룡출장소가 계룡시로 승격함으로써 234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정식 출범하였다.

여기서 계룡시 출범에 따른 연혁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983. 620사업(3군본부 이전) 추진, 신도시 건설과 정부의 시설치 약속
1989. 7. 육·공군본부 이전 관련 시승격을 전제로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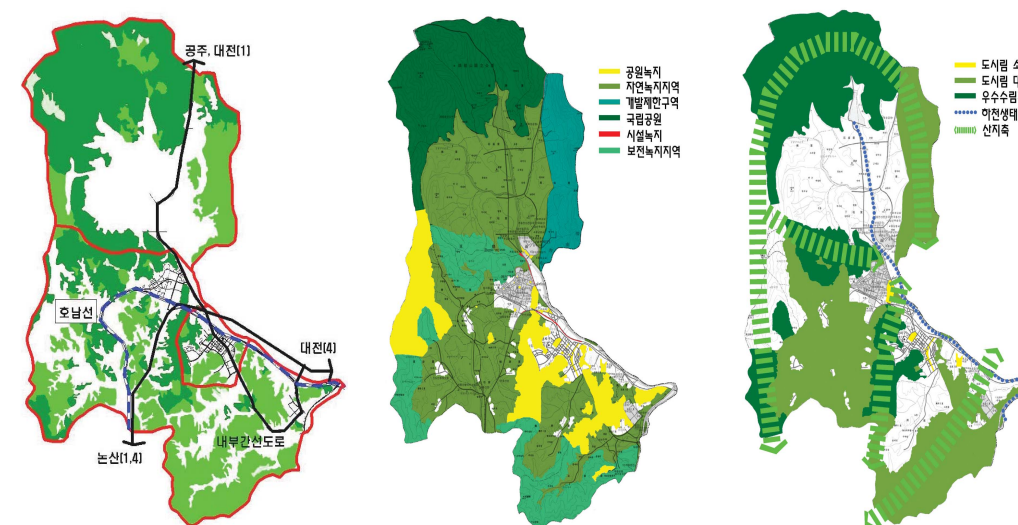


- 2001. 10. 정부(행자부) 관계관 현지방문 지역여건 및 동향 조사
- 2003. 6.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및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 차등에 관한법률안 상정, 국회 행자위 및 법사위 심의 통과
- 2003. 6. 30. 국회 본회의에서 계룡시 승격 확정
- 2003. 9. 19. 계룡시 개청식
- 2003. 10. 30. 민선시장, 시의원 동시선거 실시
- 2003. 11. 1. 초대시장 취임식 및 11월 6일 초대 시의원 개원



계룡시의 일반현황

계룡시의 신도안은 북쪽 주산인 천황봉을 비롯하여 연봉들이 좌우로 감싸고 있는 한쪽만 트인 아늑한 분지 형태의 지형으로 예로부터 풍수지리적으로 대길지(大吉地)로 조선 초 천도 후보지로 각광을 받았다. 이렇듯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전원 및 문화도시 조성에 적합한 천혜의 조건을 두루 갖춘 도시



충남의 도시5_ 계룡시

Gyeryong-City 

이지만, 한편으로 주변의 산악지형이 도시성장 측면에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계룡시 기후는 충남 내륙에 위치한 대륙성 기후로 과거 6년간 평균기온은 11.6°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최고기온은 1998년의 19.4°, 연평균 최저기온은 1997년 5.2°를 기록하였다.

과거 6년간 계룡시의 평균강수량은 1604.7mm로 주로 하절기에 집중되는 편이며, 평균상대습도는 76.7%로 연중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강수계를 따라 지방2급 하천 5개소(두계천, 농소천, 왕대천, 연산천, 도곡천) 소재하고 있고, 하천연장은 18.5km로 충청남도 하천연장의 약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5개의 지방2급 하천은 84%의 개수율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계룡시 행정구역 면적은 60.68km²로서, 2005년까지는 두마면, 남선면의 2개 면과 금암동 1개 동이었으나, 2006년도 초반 신설된 엄사면은 엄사, 유동, 향한, 도곡, 광석 등 5개 리로 면적 17.9km², 주민수 1만 9,248명, 두마면은 두계, 왕대, 입암, 농소리 등 4개 리로 면적 12.5km², 주민수 2,086명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계룡시는 금암동과 두마·남선면 등 3개의 동·면에서 엄사면의 개청으로 총 4개의 동·면을 갖추어 조직이 확대, 명실상부한 자치단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05년말을 기준으로 계룡시 인구는 총 34,370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물론 군부대 특성상 계룡대 내에는 주민등록상으로 잡히지 않는 상당수의 군장병 및 군무원이 생활하고 있다.

계룡시의 인구구조는 비생산연령층인구(0~14세)가 26.7%, 생산연령층 인구(15~64세)가 66.7%, 노령층 인구(65세 이상)가 6.6%로 항아리 형태의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계룡시의 인구증가 추이는 자연증가보다는 사회적 요인인 전입으로 인해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연증가에 의한 인구증가 현상은 점차 둔화되는 편이다.



광역교통체계로는 호남고속도로와 호남선철도가 있으며, 국도는 대전~논산을 연결하는 국도4호선과 계룡·계룡대 IC에서 공주를 연결하는 국도1호선이 간선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국도 1호선과 4호선은 출·퇴근시 통행량의 급

증으로 정체 및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 교통시설이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등 도심주변에 입지하여 도심지향적 교통망 형성으로 도시공간구조의 일부 단절 및 교통량 집중현상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열차역과 고속도로 IC가 남서쪽으로 치우쳐 기존 생활권과 교통수단간의 연계성이 결여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9월에는 계룡시 위상에 맞도록 종래 두계역에서 계룡역으로 명칭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계룡시지명위원회 개최 및 정부(건설교통부)에 역명 변경을 신청한 결과이다.

2005년도 말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두마, 엄사, 신도, 용남 4개였고, 중학교는 용남, 엄사 2개였으며, 고등학교는 용남고 1개가 있었으나, 2006년 3월에는 금암초·중교 및 계룡고등학교가 개교되어 현재 계룡시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가 소재하게 되었다. 현재 초등학생 수는 3,829명, 중학생은 2,136명, 고등학생은 1,403명이다.

에코폴리스를 지향하는 '전원의 모범도시'

계룡시는 시 전체 면적의 90% 정도가 녹지로 이루어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국도 1호선을 통해 실제 이동거리 30분 이내에 입지하여 자연환경 못지 않는 광역도시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전원도시로서의 특징을 갖춘 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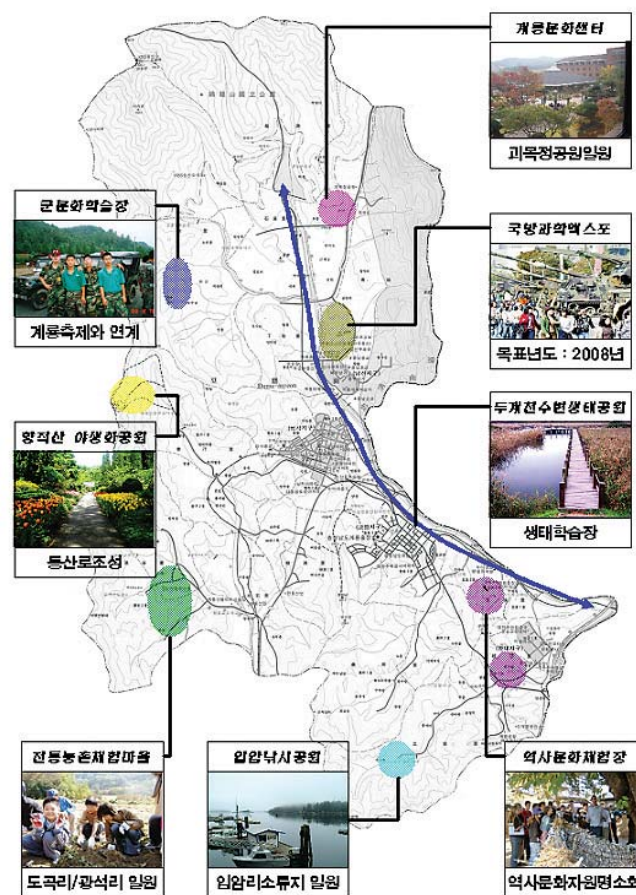
장기적으로 도시 전반에 걸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북부지역을 숲속에 묻혀있는 전원형 택지로 개발하고, 유동리에 문화·체육단지 등을 조성하여 대도시 근교의 휴식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계

충남의 도시5_ 계룡시

획으로 있다.

이에 시가지 중심부의 두계천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도시미관 관리, 인간중심 도로교통망 구축 등 상록 계룡시라는 슬로건답게 청정 전원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한민족의 전통풍수 이론과 환경친화적 도시를 접목시킨 풍수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두마면 농소리 일원인 대실지구(46만 3,000평)에 푸른숲(녹지벨트)과 깨끗한 공기(대기벨트), 그리고 맑은 물(물벨트)이 상호 연계된 풍수환경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아트폴리스를 꿈꾸는 ‘문화의 모범도시’

예로부터 계룡시는 전통 문화예술과 민속의 본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미 시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 충족을 위한 '계룡시민 어울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학생,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축제 프로그램으로 시청광장 특설 무대에서 지역 문화 예술 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여 계룡대 군악대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대형 붓글씨 쓰기 퍼포먼스, 전통한지, 축제풍경그리기, 시화전, 수석전시, 사진전시, 청소년을 위한 무궁화 백일장, 밴드공연, 가족마당극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고 있다.



특히 계룡시 이통장연합회 주관으로 마을단위 14개팀이 참여하여 단체줄다리기, 줄넘기, 널뛰기, 윷놀이 등 5개 종목의 시민화합 어울 한마당 민속놀이가 개최되고 있으며, 행사장 주변 계룡시 모범음식점단체에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판매와 시식회, 그리고 전통의 팔죽거리를 운영하고 있다.



계룡시는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건립과 인구유입 정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른 복지수요 충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시정체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특히 장애인, 청소년, 여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고품질의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립도서관, 문예회관 건립 등 공공시설을 계속 증설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더욱이 계룡시는 전원도시 문화와 계룡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계룡대 입지로 인한 군문화를 활용하여 민과 군이 화합하고 선진 국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지난 해부터 계룡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 축제를 승화·발전시켜 2008년 세계 군문화 엑스포로 추진하고자 충청남도과 계룡대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충남의 도시5_ 계룡시

민군화합을 추구하는 '국방의 모범도시'

계룡시는 세계적으로 육·해·공군 3군본부가 한 곳에 위치해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민군화합타운, 국방관련기관 및 시설유치를 위한 국방특구의 조성, 전역하는 장기복무 군인의 노후생활을 위한 제대군 인촌(retired military town) 조성 등 민군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계룡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욱이 청내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군협력부서를 설치하여, 계룡대와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민·관·군정책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팬타곤, 웨스트 포인트, 아나폴리스, 콜로라도 스프링스 등과 같은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국방관광·문화도시로 특화시켜 나가고자 여러 선

진도시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국방벤처사업체를 계룡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계룡대와 함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명실공히 국방모범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얼마전에는 '2008 계룡 세계 군(軍)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방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그 기본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충청남도과 국방부는 2008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계룡시 정장이들 일원 비상할주로 주변에서 세계최초로 군(軍)을 소재로 한 대규모 엑스포를 개최, 6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비즈니스(Business)와 페스티벌(Festival)이 융화된 국제행사를 치를 계획이다.

여기에는 육·해·공군 주제관, 전쟁역사체험관, 국방과학체험관 구성, 세계 밀리터리 패션쇼, 국방문화작품 전시회, 군사훈련체험 등의 상설행사와 군 명예의 전당, 군사장비 기동실전 체험, 세계 특수부대 전투시범 등의 특별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전에서 열리던 '지상군 페스티벌' 및 '디펜

스 아시아' 행사를 계룡대 지역에서 통합하여 개최하게 된다는 점에 각별한 의의가 있다.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계룡시

앞으로 계룡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친환경적인 SOC 기반을 조성하여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전원·문화의 모범도시로 성장할 것이 기대되며, 이를 위해 시가지 중심부 두계천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도시경관의 관리, 인간중심의 도로 교통망 구축, 전통문화가 꽃피고 넉넉한 복지커뮤니티로 성장하는 문화·복지도시로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상록 계룡시를 지향하는 청정 전원도시를 만드는 것이 기대된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3군본부가 한군데 입지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살려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국방문화를 정착시켜 우리나라를 명실공히 대표하는 국방모범도시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제 신생 자치단체로서의 계룡시는 앞으로 민선 지방자치 4기를 맞아 계룡의 정기가 살아 숨쉬고,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 민과 군이 서로 상생·협력하면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요로움이 어우러지는 경쟁력 있는 꿈의 도시로 무한히 발전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